인터넷·영상 발달 '전법의 길' 넓혀

불교콘텐츠 영상전법 활용 세계적 추세
우리나라도 선 불교 등 콘텐츠 활용해야

오늘날 불교는 세계적 전법에 있어 큰 이점을 안고 있다. 특히 인터넷통신과 영상매체의 일대 혁신으로 인해 전법의 길은 더 넓어졌다. 예를 들어 미국 명문대학 버클리 출신으로 현지에서 수계를 한 후 장장 여섯 해 동안 묵언수행을 마친 헝스이 스님처럼 포드캐스트 등으로 국제영상법문을 펴고 먼 나라의 온라인 신도들과 동시간대 일문일답까지 하여 '매킨토시스님'이란 별명을 지닌 분도 있다. '자비가 곧 나의 종교며 가슴이 곧 나의 절'이라 한 달라이 라마의 말씀처럼 굳이 절이나 포교원이 없고 여기저기 오갈 노자 한 푼 없어도 뜻만 바로 세운다면 언제 어디 누구에게든 불법을 펴나갈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따라서 이젠 거룩한 믿음을 전파한답시고 대대손손 별 탈 없이 지내는 남의 땅에 시궁쥐떼처럼 기어들어 현지 고유의 정신세계와 전통문화에 대한 무차별적 교란과 파괴를 일삼는 제국주의의 첨병을 닮은 농간질은 더 이상 먹히질 않는다. 또 눈물 없이 차마 볼 수 없는 비장한 유서를 써두고 순교의 톱뉴스를 향해 석유 등잔 앞의 불나방마냥 퍼덕대는 촌극이나, 힘든 나라의 이웃들에게 변변찮은 옷가지나 먹을 것 따위를 내흔들며 그들의 정신세계를 파먹으려드는 기생충과 같은 추태 역시 온 지구촌 사람들의 비웃음만 살 따름이다.

참으로 바른 믿음이라면 현지인들이 소중하게 지켜온 기존의 믿음과 생존방식이 더욱 풍요로워지며, 염치를 알고 상호 배려하는 참된 인간애가 가일층 성숙해지도록 도와야 한다. 뿐만 아니라, 펼치고자 하는 믿음의 실체가 바르고 순수하건데, 그 전파방식도 바르고 떳떳한 대도무문이라야 할 터, 과거 식민지 개척의 낭인 패거리를 닮은 파렴치하고 간교한 비밀공작일 수 없다.

다행히도 오늘날 수많은 홈페이지, 동영상 등을 활용한 여러 종교단체들은 일부 시대착오적 야만성과 광신적 정신착란의 작태를 제외하고 대체로 올바르게 '믿음의 공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특정 종교의 원시적 독과점형태가 공개시장경쟁시스템으로 바뀌어 가는바, 이는 곧 신앙소비자들이 사이버와 영상물에 뜬 종교백화점의 시식 코너에 들러 직접 맛을 본 다음에 최종선택을 하는 격이다. 시대적 추세가 이러한즉, 두 눈을 질끈 감겨두고 뇌수를 세척한 뒤 제멋대로 '처방된 믿음'을 주입하던 오만방자한 미션의 호시절은 다 지나갔다.

다만 이 시점에서 아쉬운 건 이처럼 양호한 전법여건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발상지자 성장발판인 동양이 서양에 비해 오히려 늘 몇 박자가 뒤쳐진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오한 선불교전통 등 방대한 불교 콘텐츠를 영상전법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문화적 비교우위와 경제적 실익을 둘 다 어이없이 놓치고 있다. 그런대로 일본불교는 전세대용 만화와 애니메이션까지 제작하여 아프리카, 유럽, 남미 등지로 약진을 하고, 중국과 타이완은 탄탄한 화교사회를 기반으로 느긋하게 영상전법을 한다. 그리고 베트남불교는 프랑스를,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불교는 영국 등을 주요 사이버전법기지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또 우리가 자칫 고루하고 폐쇄적으로 여기기 쉬운 티베트불교도 각종 인터넷매체에 불교법문, 임상심리학 세미나, 영화, 퓨전 록 콘서트 등을 띄우며 대단히 입체적인 전법 행보를 한다.

최근 예일대 학보는 티베트 승려이자 작가며 저명한 영화제작자인 종그살 켄체 린포체가 동 법대의 레빈슨 홀에서 1월 25일 저녁 7시 불교와 영화에 대해 특별법문을 펼칠 것이라 보도했다. 그는 1961년 부탄 출생으로 시킴왕립사원, 인도 라지푸르의 석가대학, 런던 동양 아프리카 연구원에서 수학했다. 그리고 베르톨루치 감독이 '리틀 붓다'를 만들 때 자문역을 맡은 후 영화제작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월드컵 열풍에 휘말린 엄숙한 라마사원의 진풍경을 그려낸 '컵(1999)'과 '여로의 마술사(2003)'에서 그 자신이 시나리오 작가와 연출을 겸했고, 다큐멘터리 '내 완벽한 스승님의 말씀(2003)'에는 주제 인물로 등장했다. 그런가 하면 작년에는 미국의 유명 불교출판사 샴발라에서 <불자가 되지못한 까닭>이란 저서를 펴내 오프라인 전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그는 버클리대학 불교회가 후원하는 국제전법단인 '붓다의 뜻'을 이끌고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캐나다 등지에 불교센터를 설립 운영한다. 이번 '불교의 서구 전법과 영화'란 그의 특별법문의 주제가 충분히 시사를 하듯 이제 영상전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출처: 예일대 학보/ 편역:성휴 스님

불교문화재 올 5월 미국순회전시회

아프간의 탈레반은 우상말살을 명분으로 2001년 바미안의 거대 석조불상을 폭파한 이래, 수도 카불 소재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세계 유산급 불교문화재 2500여 점을 파괴했다. 그 와중에 몇몇 큐레이터들이 필사적으로 일부를 반출, 암스테르담의 노이베케르크교회에서 1월 8일부터 유럽 순회전시회를 개시했다.

간다라 예술품이 주류인 이 문화재들은 네덜란드를 시발로 유럽 전역에 소개된 후, 5월부터 17개월 간 미국순회 전시한다. 출처 : 코미토

'쿵푸 성지 소림사' 보완개정 출판

<쿵푸의 성지 소림사>는 1910년부터 1940년까지 총 31권이 발간된 쿵푸전문지의 미수록 자료와 1949년까지 발간된 50여 종의 전통국술 전문지를 대거 보완개정, 1월 3일 캐세이 출판사를 통해 출판됐다.

소림사 총림은 1923년 만주군벌 서요우산의 약탈방화로 40일간 9할 이상이 소실, 1966년 문화혁명 때 재차 파괴됐으나 70년대 세계적인 쿵푸 붐에 힘입어 대 복원불사의 재정기반을 완전히 굳혔다. 출처 : 신화통신

美 시방사 불교단기집중코스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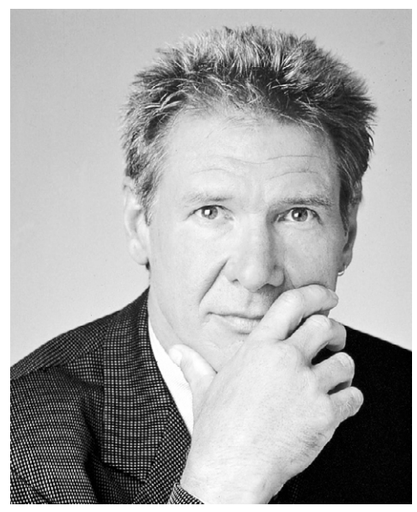
미국 샌디에이고 시방사에서는 2008년도 캘리포니아주 대전법활동의 일환으로 1월 13일부터 불교단기집중코스를 개설했다. 팔정도를 시작으로 연기론, 업보, 불교윤리학, 불교심리학과 참선 등을 총망라한 이 강좌는 3월 21일까지 매주 일요일 실시되며 강의와 교재는 모두 무상 제공된다. 출처: ABN

현대불교 구독신청 02)2004~8212

따분한 왕따에서 세계최고 갑부 배우로

원드스★타 불심도스★타

해리슨 포드 ❶



살아가면서 스치는 여러 사람들, 부딪치는 온갖 일들 중에서도 특히 서로 더욱 끌어당기는 인연의 끈이 있다. 해리슨 포드와 지난 80,90년대 황금기를 누린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사이도 그래 보인다. 얼마 전 미국의 한 영화사이트는 금년 5월에 출시될 '인디아나 존스 4: 수정 해골왕국'을 2008년 개봉예정 영화 중 최고기대작으로 선정했다. 이 시리즈는 정말 우연 닮은 필연에 의해 맨 처음 스케치가 됐다.

할리우드의 천재이자 뭇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악동단짝인 조지 루커스와 스티븐 스필버그는 70년대 말 스타워즈의 최초 개봉에 즈음하여 하와이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그들은 60년대 후반부터 내리 천하무적으로 설쳐대는 '007' 시리즈에 이르자 그만 울화통이 터졌다. 그래서 그보다 '겁나게 재미있는 물건'을 만들어 제임스 본드를 한방에 날려버리기로 작정하고 다짜고짜 주인공의 작명부터 시작했다.

루커스는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에스키모 썰매 개인 알래스칸 맬러뮤트의 이름인 '인디아나'에 '스미스'를 덧붙였으나 스필버그가 '존스'로 하자고 해서 인디아나 존스가 생겨났다. 그 다음부터는 두 사람의 초고성능 컴퓨터 두뇌가 척척 알아서 해낸 건데, 다만 주역의 선정이 골치였다. 담담한 고고학자의 풍모에 더하여 침착하고 기지에 넘치는 탐험가의 캐릭터를 두루 갖춘 데다, 묵직하고 진한 남자 냄새도 좀 풍겨야 할 텐데 하며 내내 고민하던 조지 루커스의 눈이 번쩍 뜨였다. 아, 그렇지! 할리우드의 대 법사 격인 그는 이내 불교도반인 해리슨 포드를 캐스팅한다.

이를 시작으로 7년 만에 다시금 그 후줄근한 펠트 모자를 둘러쓰고 나타난 해리슨 포드는 본디 꽤 무뚝뚝한 데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는 고교 때도 집에 틀어박혀 톱과 대패로 목공일을 즐기는 외톨이자 아무런 종교도 없었다. 그의 부모도 좀 별났던지 일가친척 대대로 믿어온 가톨릭엔 사뭇 냉담했으나 민주당엔 꽤나 열성이었다.

그래서 해리슨 포드는 간혹 누가 어떤 종교를 믿는지 물으면 민주당이라고 썰렁한 농담이나 내뱉곤 했다. 그래저래 그는 남학생들한테선 답답한 쪼다라고 집단 왕따를 당하고 여학생들 사이에선 따분한 얼간이로 놀림거리가 됐다. 급기야 짓궂은 학생들이 만든 '장래에 가장 성공하지 못할 녀석'이란 선거에서 최고득표를 하는 수모마저 겪었던 그는 이제 전 세계의 현역배우 중 최고 갑부로 기네스북에 올라있다. 해리슨 포드, 그는 글쎄 어떤 도반일까?

성휴 스님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What are the two words you would like to speak?

—하고싶은 두마디가 무엇인가

A horrible monastery allowed the monks just two words every ten year. After first ten years of practice, a monk reported to his master who asked in return, "What are the two words you would like to speak?" "Bed‥hard‥" said the monk. "I see," replied the head monk. Ten years later, the monk returned to the head monk's office. "It has been ten more years," said the head monk. "What are the two words you would like to speak?" "Food‥messy‥" said the monk. "I see," replied the head monk. Yet another ten years passed and the monk once again met with the head monk who asked, "What are your two words now, after these ten years?" "I‥quit!" said the monk. "Well, I can see why," the head monk clicked his tongue, "All you ever do is complain." Curling under the wooden floor, an old cat mewed, "Boring! What have they been doing for the past sixty years together? – while I have caught more than sixty rats for them every year."

수도자에게 십년마다 딱 두 마디만 하게하는 무시무시한 도장이 있었다. 한 수도자가 처음십년과정을 마쳤다고 말하자 도사가 물었다. "하고픈 두 마디가 뭣인고?" "잠자리‥딱딱."

"아, 그래?" 다시 십년이 지나 도사가 그에게 물었다. "하고픈 두 마디가 뭣인고?" "먹을거리‥엉망." "음, 알겠네." 그리고 또 십년이 흘러 도사가 다시 그에게 물었다. "하고픈 두마디가 뭣인고?" "나‥떠나겠소." 도사가 끌끌 혀를 찼다. "알만해. 자네가 내내 하는 일이란 불평뿐이로군." 그러자 마루 밑에 웅크린 늙은 고양이가 야옹했다. "아웅, 지겨워. 저 두 사람 합쳐서 지난 육십 년 동안 한 일이 뭐야? 난 해마다 쥐라도 육십 마리 넘게 잡아줬는데."

번안:성휴 스님/그림:이태수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입종안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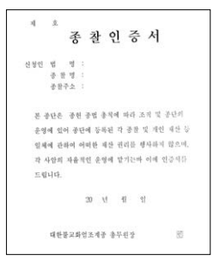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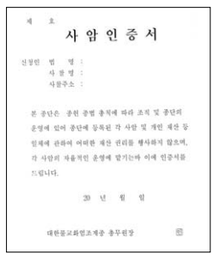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문 의 : 총무원 054)632-2799
창종주 011-228-7813
※종단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종주 혜상스님께 문의 바랍니다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 1조.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제 호
종 찰 인 증 서
신청인 법 명 :
종 찰 명 :
종찰주소 :
본 종단은 종헌 종법 등적에 따라 조직 및 종단의 운영에 있어 종단에 등록된 각 종찰 및 개인 재산 등 일체에 관하여 어떠한 제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며, 각 사암의 자율적인 운영에 맡기는바 이에 인증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총무원장 인


제 호
사 암 인 증 서
신청인 법 명 :
사 암 명 :
사암주소 :
본 종단은 종헌 종법 등적에 따라 조직 및 종단의 운영에 있어 종단에 등록된 각 사암 및 개인 재산 등 일체에 관하여 어떠한 제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며, 각 사암의 자율적인 운영에 맡기는바 이에 인증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총무원장 인

자·광·스·님·의·원·각·경·이·야·기

좋은만남 멋진이별

글 자광스님 / 정가10,000원

불교TV에 매주 12편에 걸쳐 방송된
자광스님의 원각경 이야기

사랑할 줄 알아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환생하거나
또 십만억 국토를 지나 왕생 하거나 상생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한 포기도 살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선연(善緣)을 지어야 합니다. –본문 중에서–

직지사 주지를 역임할 당시, 스님의 뛰어난 학식과 법문은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었다.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내고, 현대인의 생활에 맞춰 가르친다. 「불교신문」

"우리가 숨 쉬는 이 한 순간에 내 과거의 습이 녹아 있고, 현재 나의 행동은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며 "항상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이 책에 담겨 있다. 「현대불교신문」

[자광스님] · 前) 지리산 실상사 주지 · 前) 희양산 봉암사 주지 · 前) 운달산 김룡사 주지 · 前) 직지사 주지 · 현재 김룡사 회주 · 현재 문경불교대학 학장

• 자광스님의 증도가(證道歌-이름 없는 풀이 없듯 인연 없는 중생 없네)

현대북스 Tel. (051)244-1251 Fax. (051)244-1241